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대조 연구

여명균 · 박덕유*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개념 및 분류
- III.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의미 대조
- IV. 결론

【국문초록】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소개서에 성격 표현이 포함되는 등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성격 표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처럼 한국어로 자기의 성격을 원활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성격 표현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를 ‘기본의미’와 ‘전이의미’로 나누어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였다.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는 ‘일치하는 경우’에 공통점이 많았고, ‘부분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는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에 공통점이 많았지만,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모어 간섭의 영향이 많은 차이점을 유의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성격 표현 형용사, 기본의미, 전이의미, 중국인 학습자, 대조 분석

* 제1저자(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교신저자(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성격 표현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효율적인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누구나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성격에 관한 표현은 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성격 표현을 통해 서로 낯선 사람이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성격 표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로 성격을 표현하는 만큼 한국어로 성격을 원활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고급 수준에 이르는 학습자도 한정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성격을 한국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쉬울 때가 종종 있다. 더군다나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실하다’를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한자대로 ‘誠實’로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에서 여자의 부드러운 성격을 표현할 때 ‘溫柔’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부드럽다’와 대응되는 것을 모르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대로 ‘온유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중국어의 모어 간섭이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를 사용하는 데 오류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성격 표현 형용사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논의를 착안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기존에 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성격 표현 형용사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배혜수(1990), 김은영(2004), 박재남(2015) 정도이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대조의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성격 표현 형용사’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에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개념과 분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를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와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중국어와 대조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다시 ‘일치하는 경우’, ‘부분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로 재분류하여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Ⅱ.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개념 및 분류

성격 표현은 인간의 내면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쉽게 정의할 수 없고 완벽한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성격 표현 형용사 역시 일반 형용사 부류에 속하는 형용사가 아니므로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분류할 수 없다. 학자마다 그 개념과 분류에 대해 다양하므로 성격 표현 형용사의 개념과 유형 분류에 대해 기존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격 표현 형용사와 유사한 용어로 성상형용사(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감각형용사(눈, 코, 귀, 혀,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형용사),

감정형용사(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 심리형용사(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속성형용사(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등을 들 수 있다. 감각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로는 최현배(1985), 이남덕(1985), 박문섭(1987), 정재운(1989), 손용주(1992), 감정형용사에 대한 연구로는 김홍수(1988), 성상형용사 연구로는 신순자(1996)를 들 수 있다. 신순자(1996)는 기존 학자들의 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성상형용사를 재분류하였다. 즉, 성격 표현과 관련되는 성상형용사에 감각, 감정, 평가, 존재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감각형용사는 사물이나 사태의 속성에 대해 신체 외부기관인 오관감각과 신체 내부기관인 유기감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감정형용사는 인간이 사물, 현상에 대해 느껴져서 움직이게 되는 마음속의 기분이나 생각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희로애락’과 같은 내면적·주관적 감정,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속성형용사는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특질을 기술하는 ‘객관적 속성’의 존재형용사와 ‘주관적 속성’의 ‘평가형용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¹⁾ 배해수(1990)에서는 성격을 표현하는 서술어를 ‘성격 그림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작용, 두뇌작용, 적응활동 등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김은영(2004)에서는 ‘성격형용사’로 명명하고 범위를 선정하여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성격형용사를 인간의 행동양식이나 사고양식에 관한 속성이나 상태를 표현한 형용사로서 ‘{성격/머리}가 Adj’의 틀에 적합해야 하며, ‘-게 행동하다’와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는 어휘라고 주장하였다. 박재남(2015)에서는 주제에 따른 형용사에 대한 재분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²⁾ 그리

1) ‘평가’라는 용어는 ‘선악’등의 가치를 논증하는 것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른 사태의 판단 작용을 말한다. 존재형용사는 ‘있다’, ‘없다’등과 같은 존재 관련의 좁은 의미의 어휘만을 가리킨다.

고 성격과 관련된 성격형용사를 추출하여 목록화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128개의 성격형용사를 추출하였다. 성격형용사의 의미적 기준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 외부 사건을 대하는 태도, 심성, 말이나 행동, 사고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성격’의 단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①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②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③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라고 하였으며 “각 개인이 가진 남과 다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으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성격 표현 형용사란 “개인이 환경에 대해 나타내는 특정한 행동, 형태를 유지하고 감각, 감정, 평가, 존재 등의 표현을 통해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로 정의한다. 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다.

이에 최현배(1985), 박문섭(1987), 정재운(1989), 손용주(1992), 김홍수(1988), 이맹연(2015) 등에서 제시된 성격 표현 형용사의 분류와 신순재(1996)의 성상형용사에 대한 분류를 종합하여 성격 표현 형용사를 재정리하여 제시하면 <표1>³⁾과 같다.

-
- 2) 박재남(2015)은 한국어교육에서는 의미적 또는 통사적 관점에서의 분류와 달리 또 다른 관점에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한국어 통합교재는 ‘주제’나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휘 학습 역시 주제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형용사의 분류 역시 주제 중심의 분류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 3) 성격 표현 형용사의 추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뜻풀이에서 ‘성격, 성질, 성품’등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성격을 표현하는 의미를 다룬 적이 있다. 셋째,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성격’을 수식하는 예문이 있다(성격 표현 형용사를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단순히 뜻풀이만으로 판단하기 마땅하지 않으므로 예문에 나온 부분도 포함시켰음).

〈표1〉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 분류

대분류		하위분류			단어
성격 표현 형용사	심리 형용사	감각	외부	시각	밝다, 어둡다
				청각	조용하다
				촉각	거칠다, 부드럽다, 무르다
				온냉	따뜻하다, 훈훈하다, 차다, 차갑다
		감정	내부	유기	답답하다, 둔하다, 예민하다, 우울하다 ⁴⁾
				희비성	희비
	속성 형용사	평가	선악· 난이· 태도성	희비	재미있다
				공포·신뢰 성	신뢰
					미덥다, 이상하다
		존재	물형성	선악성	착하다, 순진하다, 모질다, 악하다
				난이성	까다롭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순하다
				태도성	점잖다, 얌전하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냉정하다
			행동성	원각성	모나다, 원활하다, 원만하다
				균형성	곧다, 정직하다
				한가성	급하다, 침착하다
				신중성	꼼꼼하다, 신중하다, 자상하다, 변덕스럽다
				근면성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성실하다
				강력성	용감하다, 엄하다, 엄격하다, 활발하다

감각형용사는⁵⁾ 시각, 청각, 촉각, 온냉, 유기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감정형용사는⁶⁾ 희비성, 공포·신뢰성 형용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평가형용사

- 4) 성격 표현 형용사의 추출 기준(각주3)의 세 번째에 해당된다. ‘올케가 죽은 후 오빠는 더욱 말수가 적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했다.’(『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 5) 최현배(1985)는 감각형용사에 대한 분류에서 ‘시각적-밝다, 촉각적-거칠다, 둔하다, 따뜻하다, 유기감각-답답하다, 시간감각-급하다, 모나다, 곧다’로 제시하였다. 박문섭(1987)은 ‘시각-밝다, 온각-차갑다, 따뜻하다, 촉각-거칠다, 청각-조용하다’로, 정재운(1989)은 ‘시각-밝다, 청각-조용하다, 촉각-거칠다, 부드럽다, 온각-따뜻하다, 유기감각-답답하다’로, 그리고 손용주(1992)는 ‘시각-밝다, 촉각-거칠다, 부드럽다, 온도감각-따뜻하다, 유기감각-답답하다’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 6) 김홍수(1988)는 대상 중심 감각형용사(조용하다, 부드럽다)로, 유현경(1998)은 대상 심리형용사(미덥다, 믿음직스럽다)로 분류하였다. 감각형용사와 감정형용사의 분류

는 선악성, 난이성, 태도성으로, 존재형용사는 원각성, 균형성, 한가성, 신중성, 근면성, 강력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Ⅲ.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의미 대조

기존 연구에 따라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를 분류하여 교육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감을 줄 수 있다. 2장에서 제시한 기존 분류를 따르면 대분류와 하위분류가 복잡하고 너무 많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중국어와 대응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제안하는 본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에서 성격 표현 형용사를 재분류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형용사의 중심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사전에서의 첫 번째 의미를 중심의미로 설정할 수 있는 견해와 문장의 호응도에 따라 중심의미를 설정할 수 있는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신현숙(1986)·송철의(1988)·정녕유(2012)를 참조하여 사전의 첫 번째 의미를 기본의미로 설정하고, 그 기본의미로부터 파생되거나 비유함으로써 형성된 전이의미를 설정하여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의미를 대조하고자 한다.⁷⁾

를 비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대상 중심 감각형용사’는 감각형용사의 하위 분류인 촉각감각 형용사와 겹친다. 이에 본고에서는 모두 감각형용사에 포함시켰다. 또한 최현배(1985)의 시간공간감각과 신순자(1996)의 존재형용사의 분류가 겹쳐서 본고에서는 ‘존재형용사’로 다루고자 한다.

- 7) 유숙신·이행건(2003)은 파생된 의미가 사회에 전파되어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이 새로운 의미는 바로 전이의미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파생의미는 기본의미로부터 분화되어 이루어진 새로운 의미로서 기본의미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데 반해, 전이의미는 본의로부터 파생되거나, 본의를 비유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범위가 더 넓다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중에 기본의미가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는 반면에 기본의미가 성격과 관련되지 않고 전이의미가 성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는 학습자들에게 성격에 관련된 전이의미를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성격 표현 형용사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본의미와 전이의미를 중심으로 그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중 대조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우선 한국어를 기준으로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두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성격 표현 형용사를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기본의미와 전이의미에 따른 성격 표현 형용사

분류	정의	단어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기본의미(사전의 첫 번째 의미)가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	①우울하다, 미덥다, 순진하다, 모질다, 악하다, 순하다, 점잖다, 얌전하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원활하다, 침착하다, 꼼꼼하다, 신중하다, 변덕스럽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용감하다, 엄격하다, 활발하다 ②(-)착하다 (-)정직하다 (-)냉정하다 (-)둔하다 ③(-)성실하다 (-)원만하다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전이의미(사전의 두 번째 및 다른 의미)만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	①뻘뻘하다, 조용하다, 무르다, 따뜻하다, 훈훈하다, 차다, 차갑다, 재미있다, 이상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곧다, 급하다, 엄하다 ②(-)어둡다, 부드럽다, 거칠다, 까다롭다 (-)답답하다, 예민하다, 모나다, 자상하다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는 ‘우울하다⁸⁾’처럼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의 기본의미가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우울한 사람’으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는

(정녕유:2012 재인용).

8) 『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조용하다’⁹⁾처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처럼 기본의미는 성격 표현과 관련되지 않지만 전이의미는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조용한 도서관’의 기본의미에서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다’처럼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유형의 성격 표현 형용사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재분류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기준으로 하고, 중국어는 『新華字典(現代漢語字典)』(2011)을 기준으로 하였다.

1.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를 의미와 용법의 일치 정도에 따라 일치, 부분 일치, 불일치하는 성격 표현 형용사로 나누어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와 중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의미·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성격 표현 형용사란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와 대응되는 중국어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어에서는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순진하다’, ‘겸손하다’, ‘용감하다’등 있다. 대응하는 중국어 ‘純真’, ‘謙虛’, ‘勇敢’을 들 수 있다.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중국어와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치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9) 『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표3〉 기본의미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한국	중국 ¹⁰⁾	기본의미
우울하다	憂郁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
미덥다	可靠	믿음성이 있다.
순진하다	純眞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박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하다.
모질다	殘忍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악하다	惡毒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다.
순하다	溫順	성질이나 태도가 까다롭거나 고집스럽지 않다.
점잖다	穩重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
얌전하다	文靜	성품이나 태도가 침착하고 단정하다.
겸손하다	謙虛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교만하다	驕傲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오만하다	傲慢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원활하다	圓滑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
침착하다	沉着	행동이 들뜨지 아니하고 차분하다.
꼼꼼하다	細心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신중하다	慎重	매우 조심스럽다.
변덕스럽다	善變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다.
부지런하다	勤勞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
게으르다	懶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용감하다	勇敢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차다.
엄격하다	嚴格	말, 태도, 규칙 따위가 매우 엄하고 철저하다.
활발하다	活潑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는 성격을 표현하는 기본 의미가 같은 경우이다. 즉, 같은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이다. 예를 통해 설명하겠다.

10) 한국어에 성격 표현 형용사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의 첫 번째 해석을 위주로 택한다. 둘째, 한자어일 경우 대응되는 한자어를 택한다. 셋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경우 성격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해석을 택한다(해당되는 중국어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였음).

(1) 겸손하다/謙虛

-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성숙할수록 겸손하게 된다.
 稻穗越熟越低下頭, 人越成熟越謙虛°(謙虛)
- ㉡ 그는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他是一個把自己的成功歸結于幸運的謙虛的人°(謙虛)

‘겸손하다’와 ‘謙虛’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장점이거나 단점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문 ㉠과 ㉡처럼 ‘겸손하다’를 ‘謙虛’로 번역할 수 있다.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예문을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4> 기본의미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예문

한국	중국	기본의미 예문	
우울하다	憂郁	그는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이다.	他是個每天都過得很憂郁的人°
미덥다	可靠	어머니는 큰아들을 미더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	媽媽覺得大兒子是個可靠的人°
순진하다	純真	그는 너무 순진하여 세상 물정을 모른다.	他非常純真, 不懂人情世故°
모질다	殘忍	그는 나에게 너무나도 잔인했다.	他對我太過殘忍了°
악하다	惡毒	이 사람은 매우 모질다. 자기의 친동생까지 죽였다.	這個人太惡毒了, 連自己親弟弟都殺了°
순하다	溫順	아이가 순해서 좀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孩子很溫順, 不大使性子°
점잖다	穩重	할아버지는 점잖은 노인이다.	爺爺是個穩重的老人°
얌전하다	文靜	이 여자가 얌전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칭찬을 받는다.	這個女孩很文靜, 經常被人稱贊°
겸손하다	謙虛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성숙할수록 겸손하게 된다.	稻穗越熟越低下頭, 人越成熟越謙虛°
교만하다	驕傲	그 애는 자기 집이 잘 산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게 행동한다.	那個孩子家裏有錢所以過于驕傲°

오만하다	傲慢	그녀는 타고난 미모를 갖추었으면서도 전혀 오만하지 않았다.	他天生美貌，但一点也不傲慢°
원활하다	圓滑	그는 원활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쉽다.	他比較圓滑所以很容易適應社會生活°
침착하다	沉着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 좋다.	沉着處事的性格很好°
꼼꼼하다	細心	그는 매사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他凡事都很細心處理°
신중하다	慎重	그는 매사에 신중하여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他做事慎重，從不盲目行事°
변덕스럽다	善變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人如果太善變就不易被人相信°
부지런하다	勤勞	언니는 천성이 부지런해서 식구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한다.	姐姐天生勤快，在家里第一个起床打掃院子°
게으르다	懶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懶人是不可能成功的°
용감하다	勇敢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獲得了勇敢市民獎°
엄격하다	嚴格	선생님은 엄격한 사람이다.	老師是個嚴格的人°
활발하다	活潑	아이들이 활발해서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한다.	孩子們很活潑，喜歡奔跑玩耍°

2) 기본의미가 부분 일치하는 경우

부분 일치하는 성격 표현 형용사란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차이점도 나타난다.

첫째, 기본의미는 대응할 수 있지만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난다. 즉, 서로 적용하는 대상에 의해 한계를 받는다.

(1) 착하다/善良

㉠ 그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얼굴이 예쁘다.

那个女生心地善良，長得也漂亮°(善良)

- ㉠ 那个老爷爷很善良°(善良O)
그 할아버지가 아주 착하다. (착하다X)
- ㉡ 우리 아기가 어찌면 이렇게 착할까?
我家小孩怎么就这么乖啊°(乖)

‘착하다’와 ‘善良’은 모두 마음씨가 곱고 바르다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 차이점도 나타난다. ㉠처럼 기본의미는 같으므로 호환할 수 있다. 그런데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호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착하다’의 의미에는 ‘마음씨’라는 요소가 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한국에서는 어른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처럼 어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처럼 ‘아기’를 대상으로 할 때 중국에서 ‘善良’보다 ‘乖’를 많이 사용한다. 중국에서 아기의 마음씨가 나쁘다고 인식하지 않으므로 따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의미의 범위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수식하는 범위가 중국어보다 넓어서 번역할 때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2) 정직하다/正直

- ㉢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다.
爸爸是个正直的人°(正直)
- ㉣ 그는 작년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였다.
他誠實地坦白了去年從屬下手里收受賄賂的事°(誠實)
- ㉤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說謊話是无法理直气壯的°(理直气壯)
- ㉥ 그는 협박 때문에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
他由于受到威脅, 所以无法進行如實陳述°(如實)

‘정직하다’와 ‘正直’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는 기본의미를 가진다. ‘성격’이란 단어를 직접 수식할 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직하다’의 사용 범위가 ‘正直’보다 넓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正直’은 공정하고 사심이 없음을 일러서 보통 ‘正直的人’, ‘性格正直’라는 표현에 국한되어 있다. ㉠은 잘못된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경우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誠實’과 대응한다. ㉡은 잘못이 없는 경우에 당당하게 말한다는 ‘理直氣壯’을 사용할 수 있다. ㉢은 ‘사실대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如實’과 대응한다.

셋째, 한국어 하나인 형식에 기본의미 두 개를 가지는 경우이다. 대응하는 중국어 두 개가 있는 것이다.

(3) 냉정하다¹¹⁾/冷靜/冷漠¹²⁾

- ㉠ 그는 중학교까지 여자답게 침착하고 냉정했다.
他一直到中學的時候都像女生一樣的沉着冷靜°(冷靜)
㉡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지만 제겐 너무 냉정했어요.
雖然我的妻子是個不錯的人，但是對我太冷漠了°(冷漠)

사전에 따라 ‘냉정하다’는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冷靜’과 대응한다. 또한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冷漠’과 대응한다. 그러므로 실제 문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다는 성격을 표현하는 경우는 ‘冷靜’과 대응하지만, ㉡처럼 정답지 않은 아내를 표현하는 경우는 ‘冷漠’과 대응한다.

11) 냉정하다는 ‘냉정(冷靜)하다, 냉정(冷情)하다’ 등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12) 중국어의 선정 기준(각주10)의 세 번째에 해당된다. ‘냉정(冷情)하다’의 중국어 해석은 ‘冷冰冰, 无情, 冷漠, 冷血’등이 있다. ‘冷漠’이 비교적 성격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택하였다.

넷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실제 사용방식이 다른 경우이다. 즉,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 한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둔하다’와 대응하는 ‘遲鈍’은 실제 사용할 때 직접 ‘성격’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지 않고 수식어를 붙여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4) 둔하다/遲鈍

㉠ 어리석고 둔한 사람과 까다로운 일을 함께 할 수는 없다.

棘手的事不能和愚笨而反應遲鈍的人一起做°(反應遲鈍)

㉡ 이 사람이 둔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

這個人反應遲鈍, 聽不懂別人說什麼°(反應遲鈍)

‘둔하다’와 ‘遲鈍’은 모두 깨우침이 늦고 재주가 무디다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遲鈍’은 ‘성격’을 직접 수식하는 것보다 ‘反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관용어를 만들어 성격을 수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 ㉡처럼 한국어에서는 ‘둔하다’만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습관적으로 ‘反應遲鈍’을 사용한다.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중에 기본의미가 부분 일치하는 단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5> 기본의미 부분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유형	한국	중국	공통점	차이점
1	착하다	善良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적용 대상이 다르다. -착하다 (연세 많은 사람X) -善良 (아기X)
2	정직하다	正直, 誠實, 理直氣壯, 如實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의미 범위가 다르다. -정직하다 (의미 범위가 넓음)
3	냉정하다	冷靜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하다.	2대 ²¹³⁾ 의 형식이다. -한국어 하나의 형식에 기본의미 두 개를 가지므로 대응하는 중국

		冷漠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	어도 두 개가 있다.
4	둔하다	遲鈍	깨우침이 늦고 재주가 무디다.	사용 방식이 다르다. -反應遲鈍 (중국어의 사용 습관이 다름)

3) 기본의미가 불일치하는 경우

한국어의 기본의미와 불일치하는 중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형용사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의미와 용법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본의미가 다르므로 번역할 때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¹⁴⁾. 한국어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일대다의 경우로도 간주할 수 있다.

(1) 성실하다/誠實X (可靠, 老實, 踏實, 努力O)

- ㉠ 그는 말은 일은 꼭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다.

他是一个只要接手的事就能做到的可靠的人°(可靠)

- ㉡ 그는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다.

他是一个端正老實的人°(老實)

- ㉢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을 사위로 얻고 싶어하셨다.

父親想找一個踏實的人做女婿°(踏實)

- ㉣ 그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했다.

他在母親面前發誓今后要努力生活°(努力)

13) 대응하는 한자어 두 가지가 있으므로 중국어도 두 가지가 있다.

14) 부분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미가 대부분 대응할 수 있다. 단지 특별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단어를 택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미가 거의 대응할 수 없다. 무조건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성실하다’는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誠實’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실하다’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실하다’는 ‘誠實’과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기본의미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간주한다. ㉠처럼 하겠다는 일을 꼭 해내는 환경 속에 ‘可靠’로 쓰는 경우가 있다. 믿음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일을 부탁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처럼 사람의 성품을 말할 때 올바르게 성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老實’을 들 수 있다. ㉢에서는 꾸벅꾸벅 일을 하는 모습을 수식하는 경우에 ‘踏實’을 사용한다. 경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표현한다. ㉣의 ‘성실하게 살겠다’처럼 ‘生活’을 수식할 때 ‘努力’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한국어와 대응되는 중국어가 성격 표현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빠지는 경우이다. 즉, 중국어의 성격 표현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2) 원만하다/圓滿X

- ㉠ 그는 성격이 원만해서 친구가 많다.
他的性格好, 所以朋友很多°(圓滿X 好O)
- ㉡ 원만한 성격인 그도 마침내 화를 냈다.
脾气好的他最終也發火了°(圓滿X 脾气好O)
- ㉢ 功德圓滿 (공로와 덕행이 완벽하다.)
- ㉣ 大會圓滿結束°(대회가 순조롭게 잘 끝났다.)

‘원만하다’는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圓滿’는 완벽하고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음을 표현해서 성격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만하다’는 성격 표현으로 사용할

때 ‘圓滿’과 대응하지 않는다. ㉠처럼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경우를 고려하면 ‘性格好’로 표현할 수 있다. ㉡은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성격인 사람을 표현할 때 ‘성미가 좋다’ 즉, ‘脾氣好’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圓滿’은 주로 ㉢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불교 용어로 나오는 단어로써 ㉤처럼 ‘功德’을 수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처럼 좋은 성과를 얻거나 회의가 무사히 끝날 때에도 사용한다. 기본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기본의미 불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유형	한국	기본의미	중국	기본의미	차이점
1	성실하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可靠	可以信賴依靠°	의미가 다르다. 다른 중국어로 번역한다. -성실하다 ≠ 誠實
			老實	誠實, 忠誠°規規矩矩, 不惹事	
			踏實	切實, 不浮躁°安定; 放心°	
			努力	勉力; 盡力	
2	원만하다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	圓滿	完美无缺; 完善°渾圓丰满°	사용 영역이 다르다. 중국어가 성격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만하다 ≠ 圓滿

2.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1)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한국어의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중국어와 성격을 표현하지 않는 기본의미 및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용하다’와 ‘安靜’이 있다.

(1) 조용하다/安靜

- ㉠ 아무도 없는 듯 집이 조용하고 쓸렁하다.
 家里好像什么人都沒有一樣的安靜而冷清°(安靜)
 ㉡ 저 사람은 성미가 차분하고 조용하다.
 那个人的性格比較沉着, 安靜°(安靜)

‘조용하다’와 ‘安靜’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럼 사람이 없는 조용한 집을 말할 때 ‘安靜’과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도 일치하다. ㉡처럼 말이나 행동, 성격 따위가 수선스럽지 않고 매우 얹전함을 나타낸다. 한·중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성격 표현 형용사를 정리하면 <표7>과 같다. 예문은 <표8>을 통해 제시한다.

<표7> 기본·전이의미 모두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한국	중국	기본의미	전이의미
밝다	明朗	불빛 따위가 환하다.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
조용하다	安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	말이나 행동, 성격 따위가 수선스럽지 않고 매우 얹전하다.
무르다	軟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마음이 여리거나 힘이 약하다.
따뜻하다	溫暖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당하고 포근하다.
훈훈하다	暖	날씨나 온도가 건디기 좋을 만큼 덥다.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 따스함이 있다.
차다	冷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차갑다	冰冷	촉감이 서늘하고 썩 찬 느낌이 있다.	인정이 없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
재미있다	有趣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	유쾌한 기분을 주고 유머가 있다.
이상하다	奇怪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다.

단순하다	單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외곬으로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순수하다	純粹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곧다	正	굽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다.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 없이 바르다.
급하다	急	사정이나 형편이 조금도 지체할 겨를이 없이 빨리 처리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	성격이 팔팔하여 참을성이 없다.
엄하다	嚴厲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	성격이나 행동이 철저하고 까다롭다.

〈표8〉 기본·전이의미 모두 일치하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예문

한국	중국	기본의미 예문	전이의미 예문
밝다	明朗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 陽光明朗耀眼°	친구가 밝은 사람이라서 자주 웃는다. 朋友很明朗, 經常笑°
조용하다	安靜	아무도 없는 듯 집이 조용하고 쓸렁하다. 家里像沒人一樣安靜冷清°	저 사람은 성미가 차분하고 조용하다. 那個人的性格比較沉着, 安靜°
무르다	軟	속이 나올 때까지 무른 음식을 드셔야 한다. 胃好之前要吃軟的食物°	마음이 그렇게 물러서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겠느냐? 心那麼軟, 如何在這個險惡的世上生存?
따뜻하다	溫暖	그들은 따뜻한 기후를 찾아 남쪽으로 이주했다. 他們喜歡溫暖的氣候, 搬到了南方°	나타내기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마음속은 따뜻하다. 雖然是不喜歡外露的性格, 但內心很溫暖°
훈훈하다	暖	훈훈한 공기가 좋다. 喜歡暖空氣°	요즘 훈훈한 남자의 인기가 더 많다. 最近暖男的人氣更高°
차다	冷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 冬季天氣很冷°	김 선생님은 사람이 너무 차서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다. 金老師很冷, 學生不願接近他°
차갑다	冰冷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서 들어갈 수 없다. 海水冰冷, 無法下去°	그 여자는 성격이 차갑고 눈이 높다. 那個女生性格冰冷, 眼光很高°
재미있다	有趣	그 이야기 정말 재미있다. 那個故事真有趣°	그 남자가 사람을 잘 웃게 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那男生是會逗人笑的有趣的人°

이상하다	奇怪	그는 사고 후 목소리가 이상해졌다. 事故后, 他的聲音變得很奇怪°	그는 별 생각을 다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他是一个什么都想的奇怪的人°
단순하다	單純	이 번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這件事情沒那么單純°	그녀는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다. 她像小孩子一樣單純°
순수하다	純粹	언니는 순수한 음악을 좋아한다. 姐姐喜歡純粹的音樂°	그 화가는 돈이나 출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예술가이다. 那個畫家是一位不以金錢和名利爲目的的純粹的藝術家°
곧다	正	곧은 자세로 앉아야 한다. 坐姿要正°	그는 대쪽같이 곧은 절개를 가진다. 他有如竹子般正的氣節°
급하다	急	친구가 지금 돈이 급하다. 朋友現在急用錢°	그는 성격이 급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他性格急, 一點小事也常發火°
엄하다	嚴厲	이번 비리에는 엄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對於這次違法事件, 有必要使用嚴厲法規處置°	사람이 매사에 너무 엄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법이다. 爲人處事太嚴厲, 周圍人是容易接近的°

2)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어의 기본의미는 중국어와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중국어와 일치하지 않는 성격 표현 형용사도 있다.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한국어만 있고 중국어가 없는 경우이다. 즉, 기본 의미로 한국어와 대응되는 중국어가 성격 표현과 관련되는 전이의미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둡다/暗

- ㉠ 거실에 전등이 한 개밖에 없어 너무 어둡다.
客廳只有一個燈, 太暗了°(暗)
- ㉡ 그는 성격이 어두운 편이다.
他的性格比較陰暗°(暗X 陰暗O)

‘어둡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暗’이 있다. 모두 빛이 없이 밝지 않다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럼 기본의미로 쓰일 때 대응할 수 있다.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로 보면 ‘어둡다’는 침울하고 무거운 성격을 표현하나 ‘暗’은 성격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가 결여하는 경우이다. ‘성격이 어둡다’는 중국어의 다른 형용사인 ‘陰暗¹⁵⁾’으로 번역할 수 있다.

(2) 부드럽다/柔軟

㉠ 머릿결이 부드럽다.

發質很柔軟°(柔軟)

㉡ 그녀의 말씨가 비단같이 부드럽다.

那個女人的聲音像絲綢一樣溫柔°(柔軟X 溫柔O)

㉢ 중국 여자는 억세고 남자는 참을성이 있고 부드럽다.

中國女人很強勢，男人很有耐心很溫和°(柔軟X 溫和O)

‘부드럽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柔軟¹⁶⁾’이 있다. 두 단어의 기본의미가 같고 두루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함을 표현한다. ㉠처럼 기본의미로 대응할 수 있다. 성격과 관련되는 전이의미를 보면 ‘부드럽다’는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않고 매우 따뜻함을 표현한다. ‘柔軟’은 그러한 전이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에 서로 기본의미는 같지만 전이의미는 다른 형용사로 간주한다. ㉡처럼 여자를 대상으로 ‘부드럽다’를 ‘溫柔’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처럼 참을성이 있고 부드러운 남자를 ‘溫

15) ‘陰暗’은 성격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로 표현한다. 따라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며 ‘성격’보다 ‘심리’를 더 많이 수식한다. 본고에서는 ‘어둡다’와 대응할 수 없는 단어로 간주한다.

16) ‘軟弱’도 성격을 표현하지만 주로 힘이 없거나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을 뜻한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부드럽다’와 대응할 수 없다.

和'로 번역할 수 있다.

(3) 거칠다/粗糙

㉠ 그는 그녀를 거친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他把她摔倒粗糙的地板上了°(粗糙)

㉡ 그는 거친 성격으로 남과 자주 다툰다.

他性格粗暴, 經常和別人吵架°(粗糙X 粗暴O 暴躁O)

‘거칠다’는 ‘粗糙’와 같이 나무나 살결 따위가 결이 곱지 않고 험하다는 기본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처럼 기본의미로 평평하지 않은 바닥을 수식할 때 대응할 수 있다. 전이의 의미를 보면 ‘거칠다’는 사납고 공격적인 성격을 표현한다. ‘粗糙’는 피부 등 실제적인 물체만 수식한다.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처럼 부드럽지 않고 남과 자주 다투는 사나운 성격을 ‘粗暴’나 ‘暴躁’ 등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까다롭다/苛刻

㉠ 입학하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入學的條件變得更苛刻了°(苛刻)

㉡ 이 선생님이 성격이 까다로워서 이름났다.

這位老師因為性格挑剔而出名°(苛刻X 挑剔O 乖張O)

‘까다롭다’는 ‘苛刻’과 같이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 ‘조건이 까다롭다’처럼 기본의미로 대응할 수 있다. 전이의 의미를 보면 ‘까다롭다’는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는 성격을 표현한다. ‘苛刻’은 조건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수식하지만 성격을 수식하지 않는다. ㉡처럼 중국에서 까탈이 많은 성격을 주로 ‘挑剔’을 사용하여 별스러운 성격을 표

현할 때 ‘乖張’ 등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한국어의 기본의미는 중국어와 일치하고,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는 중국어도 있지만 한국어와 다른 경우이다.

(1) 답답하다/悶

㉠ 그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게 메어지는 느낌이었다.

他突然覺得胸口有一種很悶的壓迫感°(悶)

㉡ 그는 너무 답답해서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다.

他這個人很死板，沒有一點變通性°(悶X 死板O)

㉢ 他是一個很悶的人，平時不喜歡說話°

그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평소에 말을 잘 안 한다. (답답하다X 내성적O)

‘답답하다’는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는 기본의미로 중국어 ‘悶’과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럼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태에서 ‘답답하다’를 ‘悶’으로 번역할 수 있다. 전이의미로 보면 ‘답답하다’는 융통성이 없고 지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悶’도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를 가지지만 ‘답답하다’와 의미가 다르다. 주로 성격이 명랑하지 않고 내성적인 사람을 표현한다. ㉡처럼 ‘답답한 성격’을 그대로 ‘悶的性格’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를 고려하여 ‘死板’을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性格悶’을 ‘성격이 답답하다’로 번역해도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중국에서 유머가 없거나 재미없는 내성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悶’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 예민하다/敏銳

㉠ 개는 인간보다 후각이 발달하여 냄새에 예민하다.

狗比人類的嗅覺發達，對味道感知敏銳°(敏銳)

- ㉠ 우리 누나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我的姐姐很敏感°(敏銳X 敏感O)
- ㉡ 姐姐很敏銳, 能知道我想什么°
언니는 날카로워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예민하다X
예리하다O)

‘예민하다’는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는 기본의미를 가지므로 중국어 ‘敏銳’와 대응한다. 전이의미로 보면 ‘예민하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의미를 가진다. ‘敏銳’도 성격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주로 생각이 뚜렷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칭한다. 그래서 ‘예민한 성격’을 ‘敏銳的性格’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처럼 작은 일에도 반응이나 자극이 큰 여자를 흔히 ‘예민하다’로 표현한다. 중국에서는 ‘敏感’이라는 단어는 여자에게 많이 쓰여서 이와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처럼 일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을 ‘예리하다’로 표현하면 타당하다.

(3) 모나다/有棱角

- ㉢ 곡선은 모나지 않다.
曲線沒有棱角°(有棱角)
- ㉣ 모나지 않게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 (부정)
- ㉤ 有棱角的人比較真實(모난 사람이 더 진솔하다)°(긍정)

‘모나다’는 사물의 모습에 모가 있거나 일에 드러난 표가 있다는 기본의미를 가지므로 ‘有棱角’과 대응한다. 전이의미로 보면 ‘모나다’는 말이나 짓 따위가 둥글지 못하고 까다롭다는 뜻이다. ㉢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有棱角’도 성격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전에는 충동적이고 원

만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개성이 있고 세속의 속박을 받지 않는 사람도 표현한다. 그러므로 ㉔처럼 사람을 칭찬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나다’를 그대로 ‘有棱角’으로 번역하면 적합하지 않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有棱角’을 ‘모나다’로 번역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4) 자상하다/仔細

- ㉕ 문제를 자상하게 설명한다.

仔細地說明問題°(仔細)

- ㉖ 요즘 여성들은 자상한 남자를 선호한다.

近來女生喜歡細心的男生°(仔細X 細心O 貼心O)

- ㉗ 仔細的人不容易出錯°

꼼꼼한 사람이 실수 잘 안 한다. (장상하다X 꼼꼼하다O)

‘자상하다’는 찬찬하고 자세하다는 기본의미를 가지므로 ‘仔細’와 대응한다. 전이의미로 보면 ‘자상하다’는 인정이 넘치고 정성이 지극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仔細’도 성격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주로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을 표현한다. ㉕처럼 한국에서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仔細的丈夫’로 번역하면 어색하다. 대신 ‘貼心的丈夫’, ‘細心的丈夫’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자상하다’는 성격을 표현할 때 ‘細心’, ‘貼心’으로 번역하면 더욱 적합하다. 반대로 ‘仔細’는 어떤 일을 할 때 빈틈없이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을 표현해 ㉖처럼 ‘꼼꼼하다’로 번역하면 좋다. 한·중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성격 표현 형용사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 기본의미 일치 전이의미 일치하지 않는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

유형	한국	중국	기본의미	전이의미		차이점
				한국	중국	
1	어둡다	暗	빛이 없어 밝지 않다.	분위기나 표정, 성격 따위가 침울하고 무겁다.	-	한국어만 전이의미가 있고 중국어의 전이의미가 없다.
	부드럽다	柔軟	당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아니하고 매우 따뜻하다.	-	
	거칠다	粗糙	나무나 살결 따위가 결이 곱지 않고 험하다.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	-	
	까다롭다	苛刻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	
2	답답하다	悶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융통성이 없이 고지식하다.	성격이 명랑하지 않고 내성적이다.	중국어도 전이의미가 있지만 한국어와 다른 의미로 다른 성격을 표현한다.
	예민하다	敏銳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생각이 뚜렷하고 머리가 똑똑하다.	
	모나다	有棱角	사물의 모습에 모가 있거나 일에 드러난 표가 있다.	말이나 짓 따위가 둥글지 못하고 까다롭다.(부정)	개성이 있고 세속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충동적이고 원만하지 않다.(긍정/부정)	
	자상하다	仔細	찬찬하고 자세하다.	인정이 넘치고 정성이 지극하다.	꼼꼼하고 조심스럽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성격 표현 형용사를 기본의미와 전이의미로 나누어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였다. 이에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세부적인 분류를 제시하면 <표10>과 같다.

〈표10〉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 세부적 분류

대분류	하위분류	단어	
기본의미	일치	우울하다, 미덥다, 믿음직스럽다, 순진하다, 모질다, 악하다, 순하다, 점잖다, 얌전하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원활하다, 침착하다, 꼼꼼하다, 신중하다, 변덕스럽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용감하다, 엄격하다, 활발하다	
	부분 일치	적용 대상 다름	착하다
		의미 범위 다름	정직하다
		2대2 형식	냉정하다
		사용 방식 다름	둔하다
	불일치	다른 단어로 번역함	성실하다
		사용 영역 다름	원만하다
전이의미	기본·전이의미 모두 일치	밝다, 조용하다, 무르다, 따뜻하다, 훈훈하다, 차다, 차갑다, 재미있다, 이상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곧다, 급하다, 엄하다	
	기본의미 일치 전이의미 불일치	중국어 전이의미 결여	어둡다, 부드럽다, 거칠다, 까다롭다
		다른 성격 표현함	답답하다, 예민하다, 모나다, 자상하다

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격 표현 형용사 교육 방향

지금까지 한국어를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와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로 분류하여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였다. 이에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의 대응관계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즉 한·중 성격 표현 형용사가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 단어들은 중국인 학습자가 비교적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교육할 때 중국어와 같이 제시해 주면 한국어의 이해 및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하다, 겸손하다, 활발하다, 신중하다, 침착하다’를 가르칠 때 ‘憂郁, 謙虛,

活潑, 慎重, 沉着’등 중국어 번역을 같이 제시한다.

둘째, 기본의미가 부분 일치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형식이나 의미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는 유형이다. 적용 대상, 사용 방식, 의미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중국어와 일치하는 단어로 착각해 오류를 범할 것이다. 이를 교육할 때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예시를 통해 실제 사용에서 모든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착하다’를 가르칠 때 ‘친구가 착하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착하다.’처럼 한국에서 적용하는 대상에 한계를 드러내는 예문도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셋째, 기본의미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단어들은 대부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형식과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다르더라도 학습자가 일치하는 단어로 착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도 잘못된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틀린 중국어로 대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교육할 때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규명하여 학습자들에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실하다’를 가르칠 때 ‘誠實’로 번역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준다. 그리고 ㉠과 ㉡처럼 해당 단어를 포함한 예문도 같이 제시해 준다.

㉠ 좋은 독후감을 쓰려면 책을 성실하게 읽어야 한다.(努力)

㉡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을 사위로 얻고 싶어 하셨습니다.(踏實)

넷째,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기본의미 및 전이의미가 중국어와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면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교재 등 학습 자료에서 전이의미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전이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성격 표현 형용사로 인식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교육할 때 전이의미를 따로 제시하면서 성격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급하다’를 가르칠 때 ㉠처럼 성격을 표현하는 전이의미를 드러내는 예문도 같이 제시해 준다.

㉠ 그는 불일이 급하여 후닥닥 일어섰다. (기본의미)

㉡ 성격이 급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전이의미)

다섯째,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기본의미 및 전이의미를 모두 갖는 한국어와 달리 기본의미만 있고 전이의미가 없는 중국어가 있다.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가 그대로 중국어와 대응해 한국어의 기본의미만 알고 전이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할 때 중국어와 달리 성격 표현 형용사로 사용하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또한, 이 유형에서 중국어도 전이의미가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전이의미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전이의미를 알아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여 언어생활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를 교육할 때 성격 표현 형용사로써 서로 어떤 성격을 표현하는지 그 차이점을 예문을 통해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답답하다’를 가르칠 때 중국어와 다른 성격을 표현하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 ㉠ 성격이 답답하다 ≠ 性格悶[°] (전이의미)
 -말을 잘 안 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중국어 의미)
 -용통성이 없이 고지식한 사람이다. (한국어 의미)

실제 수업에서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를 교육할 때 중국어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기반으로 각 유형의 난이도를 고려하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중국어와 공통점이 많으므로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다. 반면에 기본의미가 부분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중국어와 차이점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다. 실제 학습에서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를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어 교육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고는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를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와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였다. 의미대조를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더 세분한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성격 표현 형용사가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차이점이 더 많고 복잡한 사실을 알아냈다. 실제 사용하는 상황이나 적용하는 대상 등에 따라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수업에서 각 분류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성격 표현 형용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일치하는 경우’와 전이

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기본의미와 전이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여 실제 학습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한국어의 기본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부분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와 전이의미가 성격 표현인 형용사 중에 ‘기본의미는 일치하나 전이의미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어려운 부분인 것도 확인하였다. 이에 실제 교육에서 이 부분을 더욱 중요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차이점을 알려주고 성격 표현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았지만 성격 표현 형용사를 대상으로 중국어와 대조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와 중국어 성격 표현 형용사의 의미 대조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효율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방안까지 확장하지 못한 한계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은영, 「국어 성격 형용사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31집, 언어과학회, 2004, pp.57-80.(UCI: G704-000944.2004.1.31.009)
- 김홍수, 「현대국어 심리동사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박문섭, 「우리말 형용사의 감각어 연구」, 『語文論集』 제20집, 中央大學校文理科大學國語國文學科, 1987, pp.125-146.
- 박재남, 「한국어 성격형용사의 분류와 교육 방안」, 『한국어와 문화』 제17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pp.131-157.
- 배혜수, 『국어내용연구: 성격 그림씨를 중심으로』,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90.
- 배현미, 「평가 형용사 good과 nice의 언어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석사학위논문, 2007.
- 손용주, 「감각형용사의 분류 체계」, 『大邱語文論叢』 제10집, 대구어문학회, 1992, pp.127-154.
- 송철의, 「派生語形成에 있어서의 制約現象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제99집, 국어국문학회, 1988, pp.309-333.
- 신순자, 「현대 국어의 형용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6.
- 신현숙,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동사의 의미연구」, 『論文集』 제17집, 인문과학편, 祥明女子大學校, 1986, pp.71-112.
- 유숙신·이행진, 『현대중국어 어휘학 입문』, 學古房, 2003.
- 이남덕, 『韓國語 語源 研究: 形容詞 語集의 語源』,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5.
- 이맹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감정용언 교육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장세영, 「한국어 감각형용사의 인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 정녕유,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촉각형용사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정재윤, 「국어 감각동사의 의미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조미영, 「장면-상황 중심의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8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新華字典(現代漢語字典)』, 商務印書館, 2011.

Abstract

Contrasting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of Personality for Chinese Learners

Lu Ming Jun · Park Deok-yu

Adjectives of personality are very important for foreign Korean learners, especially in applying to study or find a job in Korea. However, most foreign learners cannot express their personalities in Korean as precisely as they can in their native languages. This paper examine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of personality, focusing on the adjectives of personality frequently used by Chinese learners in real life. We characterized Korean adjectives of personality having “-basic meaning-” or “extended meaning” and compared them with the corresponding Chinese adjectives. The basic meaning is that adjectives of personality were found to have a lot in common in the case of ‘complete agreement’, and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the case of ‘partial agreement’ and ‘disagreement’. In addition, the extended meaning is a character expression have a lot in common in ‘the case where the basic meaning and the extended meaning coincide’, bu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case where the ‘basic meaning matches but the extended meaning does not coinci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native language interference.

Key Word : adjectives of personality, basic meanings, extended meanings,
Chinese learners, contrast analysis

여명균-제1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mingjunlu@naver.com

박덕유-교신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deokyu@inha.ac.kr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2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